

선익시스템, 6세대 OLED 증착장비 앞세워 성장궤도 올랐다



백은진 withok@ 디스플레이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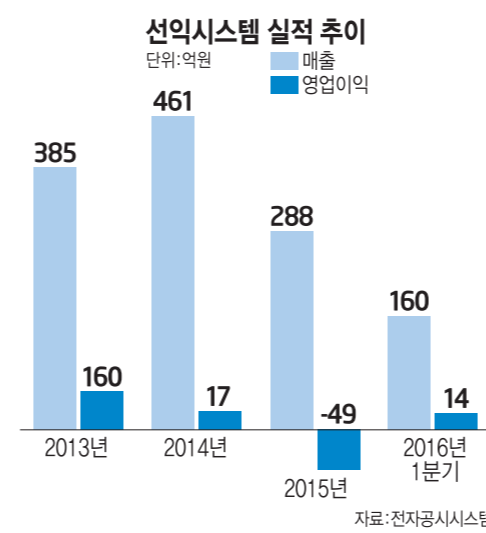
R&D용 벗어나 올해 대량 공급 시작 상반기 매출 607억...작년 실적 넘어

日 캐논도키 독점시장 판도 변화 시장 점유율 높여 내년 IPO 추진

량 공급하기 시작해 상반기 매출 607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160억원에서 2분기 447억원으로 매출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연간 실적(288억원)도 돌파했다.

선익시스템은 지난 1990년 설립돼 약 20년 이상 OLED 증착·봉지장비 연구개발에 매달린 전문 기업이다. 국내외 패널 제조사에 2세대, 4세대, 5세대 등 다양한 규격의 OLED 증착장비를 공급했지만 그동안 연구개발 용도가 대부분이었다. OLED 조명용 라인, 중국 2세대 OLED 패널용 라인에 일부 양산 공급했다.

선익시스템이 올해 호황을 맞은 것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OLED 설비 증설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를 채택하는 속도가 빨라져 증착장비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선익시스템은 오랜 기술 개



발과 실제 양산 라인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6세대 장비 공급에 성공하며 성과를 거뒀다.

선익시스템 선전은 의미가 남다르다. 단순한 실적 아닌 세계 OLED 증착장비 업계 지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다.

현재 OLED 증착장비 시장은 일본 캐논도키가 독점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이 캐논도키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그 만큼 영향력이 막강한데, 선익시스템 장비가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돼 경쟁력을 인정받은다면 향후 장비 공급망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논도키가 독보적인 OLED 증착장비 1위이므로 검증된 장비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싶은 패널 제조사 입장에서

양산 적용 사례가 없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게 꺼려질 수밖에 없다"며 "선익시스템 장비를 사용해 무난히 양산한다면 향후 세계 장비 공급망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익시스템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급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패널 양산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선익시스템 모회사인 동아엘텍 박재규 회장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선익시스템은 단일 증착장비뿐만 아니라 OLED 양산 공정 전반에 걸친 기술 경험이 풍부한 장점이 있는 만큼 특정 해외기업 위주로 형성된 OLED 증착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OLED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여서 선익시스템 연간 매출은 1000억원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익시스템은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주간사 선정도 마쳤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선익시스템 본사에서 OLED 장비를 포장해 이송하고 있다.



▶선익시스템의 5세대(1300x1100) OLED 증착기.

서울반도체, 베트남 LED 공장 짓는다

2019년까지 총 3억달러 투자 계획

서울반도체가 베트남에 발광다이오드(LED) 생산 기지를 만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지난 주말 베트남 북부 하남성으로부터 LED 패키징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허가를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투자계획서를 통해 7만5000㎡ 부지에 2019년까지 2단계에 걸쳐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초기 투자 규모는 1000만달러며, 총 3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반도체는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로 원가를 절감하며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 진출을 결정했다.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전자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세계적인 LED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 기

점으로 베트남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가전 업체 P3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P3인터내셔널이 자외선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공기정화기를 미국 월마트 등에서 판매하며 자사의 자외선 LED칩, 패키징, 포충기 제조 전만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 8월자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6월 경희가 제조업체인 미국 살룬 서플라이 스토어와 UV 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가 benyun@etnews.com

ICT·스포츠 융합산업 키운다

미래·문제부, 포럼 열고 스마트 스타디움 등 4개 과제 논의

배구게임 증강현실(VR) 안경을 끼자 공이 날아온다. 선수와 함께 뛰기도 한다. 축구게임에는 선수가 공을 차는 각도와 속도가 바로 뜬다. 권투선수 클리브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상대 선수의 얼굴이 보인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과 스포츠를 결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을 정부가 육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체육계와 IT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1회 창조경제 융합 스포츠 산업 포럼'을 열었다.

스포츠 산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 유통,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성이 높다. 미국 나이키 등은 애플과 협업하고 운동화에 센서를 붙여 내놓기도 한다.

스포츠 산업은 과학기술이 적용된 첨단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지만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정부는 포럼을 열고 지능형 경기장(스마트 스타디움)과 가상현실(VR)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 등 유망 과제를 조망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스마트 스타디움 스포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첨단 스포츠 아카데미 △데이터 기반 스포츠·레저산업 4개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미래부와 문제부는 양 부처 차관이 이끄는 '창조경제 융합 스포츠산업 육성 협의체'를 만들어 4개 과제 상용화를 집중적으로 돕고 연말에는 관련 지원 정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스포츠 산업도 창조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ICT기술력, 미디어 역량, 한류기획의 힘으로 전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산업을 혁신시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다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뉴스 브리핑

고객맞춤 강화한 파라미터 분석기 출시



한국텍트로닉스(대표 양석용)는 고객 맞춤 설정을 강화한 키슬리 파라미터 분석기(4200A-SC S·사진)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테스트 설정 시간을 기존 모델 대비 최대 절반으로 줄였다. 또 새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췄고, 고화질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한국텍트로닉스는 4채널 스위치 모듈 키슬리(4200A-CVIV)도 출시했다. 프로버 니들, 이동 케이블을 움직이지 않고도 커패시턴스-전압(C-V) 측정을 다른 장치로 옮길 수 있다.

다목적 SSD 테스트 장비 선택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업체 아드반테스트는 SATA, SAS, PCI익스프레스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MPT3000HVM)를 출시한다.

신제품은 U.2, M.2 같은 다양한 SSD 폼팩터도 지원한다. 장비 하나로 여러 인터페이스와 폼팩터를 모두 지원해 SSD 제조사의 테스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드반테스트의 설명이다.

새로운 열 제어 기술을 적용, 발열이 많은 고성능 SSD도 테스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드반테스트 관계자는 "이 장비는 SSD 제조사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고 말했다.

이메일 전용 APT 대응 솔루션

SmashAPT

이메일을 통해 특정대상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APT에 대응하여 최적화된 새로운 기술과 행위기반 탐지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한 이메일 환경을 제공합니다.

통제기술

발신이력 관리, 콘텐츠 구성의 분류 등 새로운 트래픽 통제기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관 특허기술 출원중)

연동기술

안정적이고 유연한 행위분석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콘텐츠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변환기술

이메일을 PDF로 변환하여 악성 링크나 바이러스 등의 위협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동 1004호(가산동, BYCHIGHCITY) | 대표번호) 02-6947-7872 | e-mail) contact@ewall.co.kr | 기술지원) 02-6947-7878 | fax) 02-6947-7871